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고수온·적조 대응 경남지역 현장점검

- 적조 위기 경보 '경계' 단계 발령, 예찰과 방제로 어업 피해예방 최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4일(금) 통영시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하여 고수온에 따른 재해 및 적조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을 격려했다.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따르면 9월 1일 13시 기준 경남지역(진해만)의 수온은 28.2℃로 전년 수온 대비 1.6℃ 높은 수온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경남 지역은 조피볼락의 피해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철저한 고수온·적조 피해 예방·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일 계속되는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장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현장에서 어업인들께서 느끼고 계실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해수부와 지방정부, 어업인이 서로 협업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적조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만큼, 빈틈없는 예찰과 초동방제로 어업 피해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51-773-5610)
	어촌양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범규 (051-773-5626)